

메시지 3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 곧 그분의 목적에 따라 부름받은 사람들에게는

모든 것이 협력함으로써 선이 이루어짐

성경 말씀: 롬 8:26-29

- I. 중보 기도하시는 영은 우리를 위해 중보 기도하심으로써 우리를 도우시고, 동정하시고, 떠받쳐 주시며, 위로하시고, 지지하신다—롬 8:26-27.
 - A.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그 영은 우리의 연약함 가운데 도우신다. 특별히 로마서 8장 26절에 언급된 연약함은 기도에서의 연약함이다.
 1. 우리는 하나님의 권익과 신성한 것들에 있어서 연약하고 하나님께서 어떠한 기도를 갈망하시는지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내주하시는 영은 우리 안에서 일하시면서 기도에서의 우리의 연약함 가운데 도우신다.
 2. 그 영은 온갖 종류의 상황에서 우리를 도우신다. 왜냐하면 그분은 우리의 모든 필요와 문제와 결점을 아시고, 우리를 동정하시고 지지하시며 떠받쳐 주시기 때문이다.
 - B. 그 영은 우리가 탄식하는 것같이 탄식하시면서 우리를 위해 중보 기도하신다. 겉으로 보기에 이것은 우리가 탄식하는 것이지만, 우리의 탄식 안에서 그 영께서 탄식하시는 것이다—롬 8:26.
 - C. 그 영은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고 우리를 위해 중보 기도하심으로써 우리 안에서 일하실 때, 우리의 기도 안에서 하나님에 따른 그분의 생각을 우리 안에 주입하신다—롬 8:27.
- II. 그 영은 우리를 위해 중보 기도하시고, 모든 것이 협력하여 우리를 만아들과 같은 형상을 이루게 한다—롬 8:26-29.
 - A. 그 영의 중보기도는 단지 하나님의 뜻에 따른 것이 아니고, 하나님 그분 자신에 따른 것이다—롬 8:26-27.
 1. 그 영은 우리가 그리스도와 완전히 같은 형상을 이루도록 중보기도하신다—롬 8:27, 29.
 2. 그리스도는 모형이시며 그 영께서는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이 우리를 틀 안에 넣어 우리가 이 모형, 즉 하나님의 만아들의 형상이 되도록 기도하신다—롬 8:29.
 - B. 그 영의 중보기도 결과,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 즉 하나님의 목적을 성취한다—롬 8:26, 28:
 1. 우리 밖에 있는 모든 것이 협력하는 것은 항상 우리 안의 그 영의 탄식하심을 따른다—롬 8:27-28.
 2. 아버지 하나님은 주권자이시고, 모든 것을 안배하시며,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이 무엇인지 알고 계신다. 그 분은 모든 것이 선을 위해 협력하게 하심으로 그 영의 중보기도에 응답하신다. 이 선은 우리가 삼일 하나님의 단체적인 표현을 위해 하나님의 만아들과 같은 형상을 이루게 하는 것이다—롬 8:28-29.

3. 우리는 고난들을 통과하는 이유가 하나님께서 목적이 있으시고, 우리의 고난들이 그 목적의 성취를 위해 협력하는 “모든 것”이라는 것을 깨달아야 한다—롬 8:18.
 4. 문맥에 따르면 28절에 언급된 선은 우리가 하나님의 맏아들인 그리스도와 같은 형상을 이루는 것이다—롬 8:29.
 5. 우리는 우리 자신의 손에 있지 않고 주님의 손 안에 있다. 그분은 그분의 형상을 이루는 목적이 성취되는 과정에 우리를 두셨다.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는 과정에 놓여졌다는 것을 깨닫는 이들은 참된 화평을 가질 것이다—요 10:28-29, 롬 8:28-29, 15:33, 16:20.
- C.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그분의 아들과 같은 형상을 이루도록 우리를 부르셨고, 그분의 목적 안에서 하나님과 협력하는 길은 그분을 사랑하는 것이다—롬 8:28-29:
1.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그분께 협력하는 것이고, 그분께 협력하는 것은 그분께서 그분의 목적을 우리 안에서, 우리와 함께 이루시도록 기회를 드리는 것이다—막 12:30.
 2.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모든 것이 우리의 유익을 위해, 즉 같은 형상 이루는 것을 위해 협력한다—롬 8:29.
 3. 모든 것이 유익인지 해인지는 하나님의 향한 우리의 사랑에 달려있다. 비결은 그분을 사랑하는 것이다—롬 8:28, 고전 2:9.
 - a. “그대는 마음을 다하고 혼을 다하고 생각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그대의 하나님을 사랑해야 합니다”—막 12:30.
 - b. “우리가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요일 4:19:
 - (1) 우리 중 누구도 자신으로부터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다.
 - (2)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다. 그 사랑하심 안에서 그분의 사랑을 우리 안에 주입하시고, 그 사랑을 우리 안에 만드셨다. 우리는 그 사랑으로 그분을 사랑하고, 서로를 사랑한다.